

<서평>

## 『종교의 미래(The Future of Faith)』

하비 콕스 지음, 김창락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10, 349쪽

양재훈\*

### 1.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는 나날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교인 숫자의 감소,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 등이 가장 크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이기적, 비윤리적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모습 때문일 것이다. 자기들 뱃속만 채우는 이기주의 집단으로서의 교회,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지도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물질적 탐욕을 밝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이권을 놓고 서로 고소하고 용역을 동원하며 싸워대는 교인들, 윗물에서는 서로 한자리 차지하려고 국회의원 저리가라 할 정도로 금권 선거를 하고, 아랫물에서는 그들을 이용해서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교회 정치판에 끼어드는 교인들이 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의 없는 기독교”라 부른다. 사회적 참여나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물론 교회가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그 어느 종교보다 앞장서고

---

\* 협성대학교 교수, 신약학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억울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참으로 혐오할만한 별명이 붙여져서 놀림감이 되었고, 그런 놀림의 대상에 속하고 싶지 않은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이탈한다. 교회는 바깥에서 자신들을 향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인식도 못한 채, 자기가 잘하는 줄로만 알고 자신들만의 천국에 빠져서 희희낙락하는 바보들의 집단처럼 손가락질 당하기도 한다. 너무 비판적으로만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것인가? 물론 그 가운데서도 참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이 많이 있으나, 아직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현주소에 하비 콕스는 적절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는 교회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어떻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갔으며, 어떻게 다시금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 2. 내용 구성

1장에서 저자는 2천 년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신앙(faith)과 믿음(to believe)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세 단계로 구분한다. 이 단계는 역사적 순서와 일치하기도 하는데, 첫째는 신앙의 시대요, 둘째는 믿음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시대이다. 신앙의 시대는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운동을 하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외쳤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는 믿음의 시대로서, 이것은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예수 운동 직후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시작한다. 이 시대에서는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예수에 대한 신조들이 부각된다. 활기 넘치던 운동이 일종의 교리적 시스템으로 굳어져 가는 시기로서, 여기에서 그리스도교 근

본주의가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교리와 신조로 인해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시기에 교조적 시스템에 저항하는 운동들이 있었으며, 이들로 인해 영적인 활력은 명맥을 유지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로서 성령의 시대를 말한다. 이 시기는 종교적 시스템이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우주적 사랑과 인간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며 교리적 가르침이나 신념보다는 영성이 활력을 찾는다. 이 시기에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이 중요했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판단했다면,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저자는 이 두 가지 대조적 질문 즉, 어떻게 사느냐와 무엇을 믿느냐의 질문을 각각 신앙과 믿음으로 짝을 맞춘다. 신앙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사느냐는 삶의 실천적 질문과 관련되어 있으나 믿음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믿느냐는 교리적 신조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저자는 그리스도교가 신조가 아닌 삶의 체현의 문제 즉, 신앙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2장은 신비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다. 저자는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경외심을 느끼도록 하는 대상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신비를 꼽는다.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젯거리와는 달리, 신비는 결코 해결되거나 답변될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숭고한 것이다. 이것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 우주 안에 한 점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존재 의미,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질문과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잘 정리되어 질문과 응답 방식으로 전달되는 지식적인 교리나 이론이 아닌 체험적인 것이다. 저자는 그리스도교가 이러한 신비를 축소하고 그 자리를 교리나 이론으로 채워 넣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깔끔하게 잘 다듬어지고 정리된 ‘믿어야 하는’ 목록들

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식으로 묻는 행위를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3장에서 저자는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신비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연히 유대교-그리스도교적 전통 사회에서 태어났기에 이 종교의 배를 타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에 깊이 들어가 있기에 진정으로 다른 종교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유대교-그리스도교적 전통 안에서 신비를 체험하는 세 가지 주기를 분류한다. 첫째, 헤브라이 주기로서 이는 구약의 시대에 체험되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저자는 이 하나님의 특징을 약속의 하나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규정하면서, 이 시대가 창조로 시작하여 평화와 정의가 완성되는 세계를 꿈꾸고 그 세상을 지향한다고 말한다.

둘째로 저자는 크리스마스 주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예수께서 선포하고 이루시던 하나님 나라/통치의 시대이다. 저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통치의 개념으로 강조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개되는 시기로 이 시기를 본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혹은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한다는 것은 단지 믿음이나 지적인 것, 교리적인 고백이 아닌 예수께서 하신 그 운동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첫째 시기인 헤브라이 시기와 결코 배치되지 않고 도리어 연속성을 지닌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세 번째 시기는 부활절 주기이다. 이 시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벌이는 하나님 통치의 시기이다. 저자는 부활이 예수의 삶과 그가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통치의 사역이 단지 그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부활 이전의 예수와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를 분리하려는 시도보다는 둘 사이의 연속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종종 이 시기를 믿음의 시기로 만들어서 교리와 교회 시스템의 테두

리 안에 가두어놓는 과오를 종종 범했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이 세 시기가 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4장에서 저자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모습에 대한 잘못된 그림들을 수정하는 노력을 한다. 저자는 새로운 기회를 맞은 그리스도교가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초상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의 초상에 대한 왜곡된 모습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로, 단 하나의 초대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없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특히 이것은 나그 함마디 문서들의 발견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초대 그리스도교는 표준화된 신학이나 천편일률적인 제의나 시스템, 심지어는 공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성서도 없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있었으나 이와 동시에 같은 성령을 나누어 가졌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했다고 말한다. 둘째로, 사도적 권위라는 것이 후대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교나 예수 운동 당시의 산물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과거로 소급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셋째로 저자는 그리스도교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말한다. 저자에 의하면 초대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과는 적대하는 관계에 놓였었는데, 불과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권력의 맛을 본 그리스도교가 제국과 타협하면서 투쟁의 관계에서 은밀한 상부상조의 관계로 돌아섰으며,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을 유대인에 대한 반감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단과 정통의 분리나 사도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후대의 것이고, 초대 그리스도교 안에는 다양성이 있었으며, 그 그리스도교는 본디 세속의 제국적 권력에 저항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말한다.

5장은 신앙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는데, 하나는 성직 계급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신조이다. 5장에서 저자는 먼저 신조를 다루고 성직 계급 제도는 6장에서 다룬다.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지 불과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교 안에는 신조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당시 시대적 정황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주변 세계의 타종교들과 접하게 되자 일부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외부의 위협에 방어기제를 발휘하는데, 이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신조이다. 그러나 이 신조는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기보다는 내부 단속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게다가 그들은 돈과 권력 등 세속적 욕망에 이러한 신조를 결합시켜 본질적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왜곡시켜왔다. 본디 신조는 신앙에 대한 은유적인 것으로서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었으나,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로 고착시켜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것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신조들을 점점 의무사항으로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신조는 신학적 견해가 다른 내부인들을 규제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무리에서 추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종교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버린 제도적 제국이 되었으며, 믿음의 조항들이 신앙을 억누름으로써 활력 있던 신앙의 운동들이 화석화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고 저자는 바라본다. 저자는 신조의 오용이 낳은 심각한 결과를 교각살우에 빗대어 말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변질되어 갔는지 설명한다.

6장에서 저자는 성직 계급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는 다양성이 용납되었으나 3세기 정도에 이르자 진품과 모조품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모조품을 배척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흥한 것이 사도적 권위라는 것이다. 이것은 후대에 나온 것으로서, 진품을 지키고 모조품을 배척하기 위한 명령의 권위를 획득

하기 위한 것이다. 구별과 통제를 위한 권위를 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직 계급의 강화가 필요했다. 저자는 고대 교부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이 성직 계급을 어떻게 지지하였는지 설명한다. 성직 계급은 교회를 제국화하여서 믿는 자들 안에서 계급을 만들어내고, 지배층인 성직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의 운동이 아니라 성직 계급을 인정하고 그 지배자에게 복종하며 그들이 명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로써 신앙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로 왜곡되어 간 것이다.

7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교와 세속 권력이 어떻게 야합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한다. 이 이야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일화로 시작한다. 저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로 돌아서게 된 것 자체가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이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행위도 일종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임을 말한다. 이 황제는 자신의 제국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종교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았다. 게다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역시 세속 권력과 타협을 함으로써 그 권력을 배후로 자신들의 권력을 맞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다. 따라서 저자는 황제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의 관계를 양쪽 편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결합관계로 규정한다. 서로 이익을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니케아 공회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난다. 그리스도교가 사회에서 높고 안정된 지위를 얻게 되자 신학적 교리적 다툼에 빠져들었으며, 이로 인해 서로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에 대해 가졌던 계산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교회의 일치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니케아 공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는 애초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어서 빨리 쓸데없는 분열의 다툼이 끝나서 제국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만 원했다. 그는 이 공회의에서 하나의 신조를 선택했고, 이 신조(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에 반대하여 통일에

결립돌이 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처형하였다. 교회 지도자들도 눈치 빠르게 이것을 알아차렸으며, 다시금 세속 권력과 교회 사이의 이해타산을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 역시 이러한 타협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율리아누스가 교회 안에서 파벌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양성을 허락하려는 조짐을 보인 것이 발단이었다. 그는 교회가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고 하자 이것을 경계하였다. 그러자 교회는 율리아누스의 공격에 대해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낙인을 찍어서 반격을 가한 것이었다. 교회는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단 정죄를 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 신학적 무기들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믿음의 시대가 어떻게 신조들을 사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저자는 최근 바티칸의 화합적 태도를 예시하면서 이전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신조들의 융성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 조짐이라고 평가한다.

8장에서 저자는 자신이 추기경 시절의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가졌던 개인적 만남의 경험담을 이야기 한다. 그는 베네딕토와의 경험을 통해서 가톨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폐쇄적 선입관에 대한 수정을 말한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여러 교황들이 개방적 태도를 가졌으며, 이것이 미래에 종교 간의 개방적 대화를 위한 일종의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이 장은 뒤이어 나오는 9장과의 연결이 되는데, 이 9장에서는 종교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종교 내 대화를 강조한다. 저자는 자신과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 간에 이루어져 왔던 여러 폭력적 역사를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에 반해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정작 문제는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니라 종교 안에서의 대화라고 말한다. 그는 같은 종교 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사람과 진보적 성향의 사람의 대화가 차라리 타종교 사람과의 대화보다 더 어려움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종교 안에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한 것이

성공을 이룬 경험을 말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것임을 말한다. 최근 대두되는 복음주의나 성령운동 파들은 옛날과 달리 결코 폐쇄적 근본주의 성향으로 고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것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협력을 이룰 좋은 기회라고 저자는 말한다.

10장에서는 근본주의에 대하여 논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고수하는 일종의 신조를 바탕으로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말한다. 저자는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고 내세우는 조항들이 사실상 기본적 보편적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정체를 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신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부의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며 그들을 배신자로 낙인찍는다. 이들이 관심을 갖고 싸우려고 늘 준비하는 사람들은 타 종교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같은 종교 안에서의 이러한 배신자들이다. 앞서 9장에서 언급했던 같은 종교 내의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보통 규정되고 있다.

11장은 성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근본주의자들은 성서에 대하여 문자적 집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성서를 믿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성서는 어떤 번역본을 말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성서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왔고, 성서에 문자적 집착을 할 때에는 번역본 선택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성서에는 발견된 원본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믿는 성서를 고집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소지가 있다. 저자는 오늘날에는 다양한 번역과 스타일의 성서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성서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리어 성서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성서가 우리의 신앙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때에 비로소 성서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2장에서 저자는 다시금 믿음의 시대와 신앙의 시대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는 최근 변질된 믿음의 시대 가운데서 신앙의 시대를 회복하려는 운동들을 소개한다. 상태지디오 공동체 등이 바로 그런 예인데, 이들은 교리적 신조에 얽매이기 보다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뒤따르는 모습을 체현하였으며, 이로써 다시금 그리스도교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저자는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서구의 종교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비서구 세계에서 힘을 떨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이 비서구적 그리스도교는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가난과 기아 등과 같은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과거 믿음의 시대가 신앙의 시대를 변질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이제는 그 믿음의 시대가 종료되고 있음을 이러한 세계적 현상이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와 동시에 저자는 믿음의 시대를 완전히 부인할 수도 부인해서도 안됨을 말하면서 과거를 통해 좀더 긍정적인 미래, 성령의 시대로 나아가야 함을 말한다.

13장은 남미의 해방신학을 가지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전망한다. 저자는 로메로 주교와 구티에레즈 신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그리스도교의 시대는 경직화되고 화석화 된 신조와 교리적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가 아닌 삶의 한 가운데서 삶을 통해 구현되는 시대임을 말한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성직 계급이나 교리적 선언들이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시대이다. 교리적 종교인 서구 그리스도교는 죽어가고 있으나 성령께서 활동하는 삶의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는 비서구 세계에서 살아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과거 그리스도교가 잃어버렸던 원래의 모습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14장에서 저자는 남미의 크렌테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브라질의 오순절 교도들인데, 쇠퇴하는 기존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이들은 크게 성장하고 위력을 떨치고 있다. 성령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은 사회적 참여에 민감하다.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틈 속에 파고들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삶 가운데서 거룩

함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저자는 이러한 운동이 신앙의 시대를 다시금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를 넘어서 다시금 신앙의 시대를 회복하는 시대라고 전망한다. 저자는 이슬람, 불교 등과 같이 오늘날 전 세계의 다양한 주요 종교들 가운데서 딱딱한 교리나 신조, 믿음의 문제보다는 삶의 문제, 실천적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종교들이 부흥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신생 교회 운동을 그 예로 들면서 비교파적이고 교리적 제도적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탈피하며 메시지 선포보다는 메시지의 실천적 문제를 강조하는 이러한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교리와 시스템에 얽매인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교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고 말하면서, 지금 시대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성령의 시대요, 그리스도교가 최초의 모습인 신앙의 시대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대라고 본다.

### 3. 이 책에 대한 논평

이 책은 그리스도교가 지나온 역사들을 단순하게 도식화해 신앙의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로, 그리고 이제 다시 성령의 시대로 전이하는 과정에 있음을 잘 관찰한 책이다. 저자가 지적한대로 그리스도교가 그 생명력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힘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모습인 신앙의 시대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함으로써, 더는 교리나 제도, 종교적 시스템이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그의 지적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가 분석하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 의문은 남는다. 첫째로 저자는 신앙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구분

해서 깔끔하고도 이해하기 편하게 독자를 돕지만, 이것이 너무 단순하여서 카테고리화하는 작업이 종종 유발하는 오류를 남긴다. 예를 들어, 그는 신앙의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주로 3세기로 잡는다. 그러나 이렇게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구분하기에는 역사적 현상은 그리 칼로 무를 자르듯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직제라든지 이단, 다양성 등에 대한 문제가 사실 1세기인 바울의 시대에서도 종종 나타나지 않는가?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화 할 수도 있겠으나 역사가 그리 깔끔하게 순간적으로 변하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원시적 정통성을 말하면서 요한의 문서는 신학화된 후대의 변질(?)로 보는데, 그가 말하는 도마복음서와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역시 모두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의 것 즉, 서로 거의 동시대의 산물이며, 따라서 이것을 분리하여서 어느 것은 정통적이고 어떤 것은 신학적 채색이 가미된 비정통적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과연 요한복음보다 “몇 십 년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도마복음서나 마가복음이 요한복음보다 신학적 채색의 문제에서 그토록 자유로울까?

저자는 후반에 들어서 오순절 운동의 긍정적 모습을 말한다. 제도적 교리적 통제에서 자유로운 성령의 운동을 말하면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오순절 계열을 바라본다. 물론 그러한 성향들이 저자가 말하듯이 사회적 참여와 삶 가운데서의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동반하여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시대의 밝은 미래를 예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예를 든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잔뜩 물든 그 오순절 운동이 과연 긍정적인 성령의 시대의 예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또한 역자는 두 번째 시대를 믿음의 시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이 시기는 교리나 신조에 좌우되던 시대였고 그러한 시대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저자의 의도를 살려서 믿음의 시대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교리의 시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대를 믿음의 시대로 번역하면 첫 시대인 신앙의 시대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빨리 다가오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저자의 취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판을 출간할 때는 두 번째 시대를 교리의 시대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적에도 하비 콕스의 이 책은 앞으로 그리스도교가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낙관적인 미래 예측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교가 그의 분석에 동의하고 그렇게 실천적 사회 참여적 성격 즉,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그것을 사회 속에서 이행하는 조건이 뒤따를 때 적중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제도적 종교로 고착되어가는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며, 많은 한국 교회의 현직, 예비 지도자들이 마음 깊이 새기며 일독하기를 권한다.

\* 접수일 2011년 2월 24일, 수정일 2011년 2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1년 3월 3일